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이희자,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A Study of different Combination
of contemporary Korean Idiomatic Phrase

Lee Heeja, Yonsei University Lexicographical Center

요약

이 글은 그 동안 '속어' 또는 '관용어'라는 이름 하에 별 다른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현대 국어 관용구를 그 의 형태적·통사적·의미론적 결합 관계의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그들의 특성과 하위 분류 등을 밝혀 보았다.

즉, 관용구를 그 내적구조의 특성, 구성요소들 사이의 의미상의 관련성의 긴밀도, 어휘와의 정도에 따라, 어휘화된 정도가 가장 높고 긴밀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내적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을 '속어'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연어'라 했다. '연어'가 생겨난 요인에 따라 '형태적 연어'와 '통사적 연어', '의미적 연어'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국어 관용구의 특성을 밝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각 관용구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기술을 통해 국어의 특수한 어휘 결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차례>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본론
 - 2.1. 연구의 대상 및 용어의 설정
 - 2.2. 속어
 - 2.2.1. 정의 및 특성
 - 2.2.2. 유형
 - 2.3. 의미적 연어
 - 2.3.1. 정의 및 특성
 - 2.3.2. 유형
 - 2.4. 통사적 연어
 - 2.4.1. 용언으로 인한 선택 제약
 - 2.4.2. 체언으로 인한 선택 제약
 - 2.4.3. 부사어로 인한 선택 제약
 - 2.4.4. 통사적 공기 관계에 있는 말들
 - 2.5. 형태적 연어
 - 2.5.1. 정의
 - 2.5.2. 유형
 3. 관용구의 사전적 처리의 문제점
 - 3.1. 기존 사전의 처리(처리 현황표)
 - 3.2. 기존 사전의 처리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 제시
 4. 맺는 말
- ◎자료 I, II, III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새 단어들의 조어나 외국어의 차용 따위 외에도 일반적인 어절결합을 넘어서 그 쓰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절결합을 보이는 것들, 혹은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어절들의 쓰임이 있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우선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절결합에 ‘비행기를 태우다’, ‘파리를 날리다’, ‘뒤가 풀리다’, ‘속이 타다’, ‘입이 무겁다’, ‘물구나무를 서다’, ‘가위에 놀리다’ 등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처럼 구를 이루고 있는 어절의 결합이 그 뜻에 있어서 개개 낱말이 가지는 뜻의 합과는 전혀 다른 제삼의 뜻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이루는 의미의 유형상의 하위 분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용어’, ‘속어’ 또는 ‘idiom’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절결합이 일반적인 어절결합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이들 사이에서도 그 결합 구조에 있어서 일련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앞의 두 예에서 ‘비행기를 태우다’는 그 단어들의 뜻 그대로 ‘비행기를 태운다’는 뜻이 아니라 ‘칭찬하다’라는 뜻이고, ‘파리를 날리다’도 ‘파리를 날린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이 번성하지 못함’을 이르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 이들이 바로 위에서 말한 소위 ‘속어’라고 한 것의 정의에 맞는 예들이다.

이와 달리 ‘뒤가 풀리다’는 ‘풀리다’라는 어휘의 의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결합 구조에서 ‘뒤’의 의미가 전의된 상태에서 쓰여 ‘뻗뻗하지 못하고 마음이 썩기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또한 ‘애가 서다’에서도 ‘애’의 의

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다’의 의미가 전의되어 쓰였고, ‘입이 무겁다’는 ‘입’과 ‘무겁다’ 양 쪽이 모두 전의되어 쓰인 예를 보이고 있어 이들은 위에서 살펴본 ‘비행기를 태우다’ 류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물구나무를 서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물구나무’라는 단어는 이 결합 구조에서만 쓰이고 그 외의 다른 구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자립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들은 또 다른 어절결합의 유형을 이루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어절들의 쓰임을 보이는 것에 우선 통사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특정 용언의 성질에 의해 목적어나 주어로서 특정한 어떤 것만을 선택하는 것들로서 예를 들어 ‘똥을 누다’, ‘코를 풀다’, ‘입을 다물다’, ‘모자를 쓰다’나 ‘오줌이 마렵다’, ‘개가 짓다’ 등이 있다. 또한 통사적인 공기 관계에 있는 ‘절대로 ~ 아니다’, ‘설마 ~ -ㄹ까’ 등의 결합 정보를 요구하는 것들도 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론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구조를 보이는 것에는 ‘~에 대한/대하여’, ‘~로 말미암아’ ‘-ㄴ가 보다’ ‘-ㄴ 김에’, ‘-ㄴ 바에’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한 어절이 공고하게 결합되어 쓰인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보인 것들과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이 결합되어 쓰이는 요인이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 통사론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위의 것들과 구별이 된다.

지금까지의 국어 연구에서는 위에서 보인 것들 중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을 통일된 용어 없이 ‘속어’(익은말) 또는 ‘연어’, ‘관용어’라는 이름 하에 언급하여 왔고,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김문창(1990b:545)에서 “필수공기관계에 놓이면서 화석화된 구절이거나...”라는 그의 관용어의 정의에서 보듯이 ‘절대로 ~ 아니다’와 같은 예들을 포함했는데, 같은 곳의 그의 다음과 같은 기술대로 “이와 같은 구조는 관용어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아 논의의 대상으로 남겨 놓은 상태이다.”

‘똥을 누다’, ‘오줌이 마렵다’ 등이나 ‘~

1) 이러한 연구에 김문창(1990b), 김승호(1981), 심재기(1986), 양태식(1984), 홍재성(1993), 황희영(1978)을 참고하라. 그 외에도 김문창(1990a)에서 속어 개념론을 다루면서 언급된 강정선(1982), 김인한(1983), 박영순(1985)도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에 대한', '~에 따라서', '-ㄴ 김에', '-ㄴ 가 보다' 같은 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언급이 없었던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전적 기술에 있어서는 [오줌-마렵다]를 하나의 표제어로 인식한다든지(한글학회와 신기철 외 사전: 13쪽 표 참고), [-ㄴ 가 보다]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전에서 이 자체로 표제어로 올리면서 '관용'이라는 약물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용어'라 본 것인데, 이렇듯 '관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그 사전적 처리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어절 결합을 보이는 국어의 구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개념 정립과 아울러 그의 하위 분류, 특성 등을 살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사전적 처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을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사전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의 대상 및 용어의 설정

어절 결합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어론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구조를 보이는 언어단위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구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도 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걸 누구 코에 바르냐', '이게 웬 떡이냐'가 그 한 유형이고 "이 일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저는 그 일에는 낮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에서 줄 친 부분인 속담들이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구 결합으로는 그 의미가 설명되지 않는 표현들이다. 이렇듯 자유롭지 못한 어절의 결합 구조를 보이는 것들을 그 내용상이나 형태상의 분류를 떠나, 즉,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이 생겨난 원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일련의 공통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습관적인 말의 사용'에서 야기된 현상들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일컫는 말에 그 상위 개념으로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관용 표현'이란 이렇듯 넓은 의미에서 습관적인 말의 사용에서 야기된 어절

들의 의미·통사·형태적인 결합 관계에 있는 말들을 이른다.

이러한 단어 결합은 언어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결합되고 언어 행위가 끝나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되풀이되어 쓰이는 어휘화된 단위이거나 그러한 문장유형(pattern)이므로 사전의 차원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이 때 다른 어휘적 단위와 특정한 결합을 이루는 특정 어휘의 결합 성향을 '관용성(collocability)'이라 하겠다²⁾.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용 표현을 보이는 것들을 형태상으로 분류하여 구 차원에서 이를 때 '관용구'라 하고, 문장 차원에서는 '관용문'이라 하겠다³⁾.

이러한 관용구는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통사·형태적인 잣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된다. 즉, 관용구를 우선 크게 '숙어'와 '연어'로 나누어, '비행기를 태우다' 유형을 '숙어'라고 하며, '이 외의 관용구를 이루는 연결된 어휘 구조'를 '연어'라고 하면서⁴⁾, 첫째 '뒤가 꼴리다' 류를 '의미

2) 이에 참고하라 : "Die Fähigkeit bestimmter Lexeme (bzw. Wörter), mit anderen lexikalischen Einheiten 'charakteristische' Verbindungen einzugehen, nennt man gelegentlich auch Kollokabilität (collocability)." (Werner Welte 1976: 248).

3) 문 차원의 관용 표현의 분류나 그 사전적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일단 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 때 단어는 물론 제외된다. 김문창(1992: 545쪽)에서 지적된 관용어 구조론에서 제2 유형에 동의한다.

4)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어휘 의미론에서 사용되는 collocation의 의미가 있는데, J. R. Firth(1951: 124)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예를 들어 night와 dark 혹은 ass와 silly 같은 단어들의 연합적 결합을 의미했다(참고: F. R. Palmer 1981: 76).

또한 같은 맥락에서 M.A.K. Halliday(1961: 276)는 이를 단순히 "syntagmatic association

적 언어'라 하고 '오줌이 마렵다'와 '절대로~ 아니다', '물구나무를 서다' 류를 '통사적 언어'라 하며 '~에 대한'이나 '-니가 보다' 류를 '형태적 언어'라고 한다.

그런데 관용구를 이루는 것에도 그 형태상으로 볼 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의 떡', '낙동강 오리알' 등 NP+NP 유형이 있고, '떡여 살리다', '쥐고 흔들다'처럼 V+V 구조를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덮어 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아니나 다를까' 등 부사구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주로 '관용 표현 용언구'로서 우선적으로 형태상 '체언+용언 형'을 주로하여 종결 어미 [-다]로 끝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고찰한다(단, 형태적 언어와 부사로 인한 통사적 언어는 이러한 제약과 무관하다). 그 이유는 이 유형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여 그 처리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보아 논의의 편의상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⁵⁾.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그의 정의 및 특성과 하위 분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2. 속어⁶⁾

2.2.1. 정의 및 특성

of lexical items"라 기술했다. 일반적으로는 Lyons가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통용되고 있다. "A combination of particular lexical items: e.g. *rough* collocates with *diamond* in the (idiomatic) collocation *rough diamond*." (John Lyons 1970: 318)

그런데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언어(collocation)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Kollokationen können also grob als (immer wiederkehrende) Kopplungen bzw. Patterns von Wort-Assoziation auf der formalen (materiellen), inhaltlichen bzw. realen Ebene angesehen werden." (Werner Welte: 1976: 248)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속어'란 '둘 이상의 어절이 습관적으로 결합하여 쓰이면서 이들 낱말의 의미의 합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제삼의 의미를 지니는 구절들'을 일컫는 말로서, 의미상 더 이상 나눌 수 없이 어휘화된 어절 결합을 말한다. 그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며, 두 어절의 의미의 결합 관계가 익어서(熟) 변질되었다는 뜻에서 '속어' 또는 '익은 말'이라고 한다.

이 결합의 특성은 그 결합 구조를 보이는 구가 글자 그대로의 직설적 의미로도 반드시 쓰인다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다음에 기술하는 '의미적 언어'와 구별한다. '비행기를 태우다'에서 자구적인 결합구조가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이의 관용적인 결합구조로서 '남을 추켜 세우다'라는 제삼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 구 사이에는 넓은 의미에

5)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점이 있겠으나 참고적으로 말하면 정지도는 남한의 '속어'에 해당하는 '성구' 2063개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체언+용언 형이 이의 88.94%를 차지한다고 하는 통계 숫자를 보인 적이 있다. (참고: 정지도 1990: 43쪽)

6) 관용구를 속어와 연어로 나누고 연어를 하위 분류하여 세 가지로 나누면서 필자는 이들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어절들의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용언에 착안하여 순수 우리말로 표현한 바 있다. 속어를 그 결합 관계가 '익어서 된 말'이라는 의미에서 '익은말'이라 하고, '의미적 언어'는 둘의 의미가 '굳어져서 된 것'이라 하여 '굳은말'이라 하고, '통사적 언어'는 두 어절이 항상 '뭉치어 나타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뭉친말'이라 하고, '형태적 언어'는 까닭 없이 '늘 붙어서 나타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붙은말'이라고 칭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익은 것'과 '굳은 것'이 전달하는 의미의 화석화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등 의견들이 분분하여, 이 글에서는 일단 기존의 용어와 맥을 같이 하여 한자 용어로 통일시켜 표현한다. 훗날 이 개념들이 굳어져 그 자리가 공고해지면, 그 때 가서 다시 위에서 말한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 '동음 이의'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두 문장에서 이들은 같은 통사 구조에서 A나 B와 같이 각기 다른 반응의 짝을 가지는 각기 다른 의미 구조를 갖는다.

#어린아일 자꾸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A: 그러면 어지러워서 토할 수도 있어요.)

(B: 그러다 버릇 나빠지겠어요.)

그런데 이를 '동음 이의'적이라고 조건부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원래는 그 비유적 쓰임이 굳어져 이러한 이중적인 표현 관계를 가지게 되었기에, 엄격히 말하여 전혀 그 관련성 여부가 없을 때 일컫는 표현인 '동음 이의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지, 단지 공시태에서 현상적으로 파악했을 때에는 이들은 엄연히 동음이면서 전혀 뜻이 다른 구조를 보이면서 통용되므로 이들의 관계를 '동음 이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미적 연어'를 이루는 '속이 타다' 류는 이러한 어절의 결합이 일상적인 의미론이나 단어적 의미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실제적으로 '속이 타다'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타다'의 의미가 전의되어 이렇듯 뜻 굳어진 표현 구조로 쓰여서 구를 이루는 어휘와 '다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들을 '속어'와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삼의 의미 운운'하면서도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속어' 또는 '관용어'라고 했는데, 필자의 구분에서 '의미적 연어'에 속하는 것들은 그 어절 결합 관계에 있어서 제삼의 의미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 쪽 어휘 중 그 하나가, 혹은 양 쪽 다가 전의되어 그러한 의미 결합 구조를 가지게 된 것뿐이므로, 그러한 정의에도 어긋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므로 이렇듯 구별한 것이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둘 사이를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구분시켜 주는 잣대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그 구가 동음 이의적인지 혹은 그 어휘의 다의적인 쓰임인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외에도 이들이 지니는 통사적 특성의 차이를 참고할 수 있다.

속어가 지니는 통사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관용어의 검토 방법론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왔다⁷⁾.

그러나 이들이 일반적인 구 결합일 때와 속어로 쓰였을 때 격들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강조된 바 없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속어의 특성이라고 본다⁸⁾. 속어로서 새롭게 가지게 되는 통사적인 구조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기술하여, 사전의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기술해 주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 번역에서도 이러한 구조들을 인식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해 속어의 번역 문제에서 제기되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몇몇의 예를 들어 보자.

1) 그는 밥과 미역국을 먹었다.

2) 그는 이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예문 1은 일반적인 쓰임이다. 반면 2에서는 속어로서의 쓰임인데 이 때에는 '~에서' 논항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오는 것으로 시험 따위의 명사류로 제한시켜 기술한다.

3) 그는 눈을 떴다.

4) 그는 썬에 눈을 떴다.

예문 3은 일반적인 쓰임인데 반해서 4에서는 '~에'라는 논항을 필요로 하는 속어로서의 쓰임이다.

이와 같이 속어로 쓰인 결합 구조는 일반적

7) 예를 들어 구성요소대치, 어휘삽입규칙, 수량화, 복수화, 어순변환, 상대적 구조, 수동화, 관형화, 대명사화 등이 제시되었다(이에 참고하라: 김문창(1990: 546쪽) 여기서는 이에 대한 참고문헌으로 박진수(1986), 허석(1989) 등을 들고 있다.) 홍재성(1993: 287)에서도 속어동사구문의 특성을 이러한 Test로 설명하고 있다.

독일어의 Phraseologie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일반 결합과 '속어적' 결합을 구별짓는 통사적 구조의 특성 기준으로 Idiomatizität, Semantisch-syntaktische Stabilität, Lexikalisierung und Reproduzierbarkeit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가장 보편적인 잣대가 될 수 있겠다.(W. Fleischer 1982: 35ff.)

8) 불어 동사의 속어표현의 특성과 관련하여 한정길(1986)은 동사의 용법이 달라지면 해당 문장의 통사적 특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인 결합 구조일 때와는 격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속어'의 정의에서 이미 미루어알 수 있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제약 특성을 들 수 있다⁹⁾.

예문 5와 6에서 보이듯이 속어 구조에서는 두 요소 중 하나를 대용화하거나 생략하기가 어렵다.

5) *그는 미역국을 먹었고 그녀도 그것을 먹었다.

6) *이 가게도 파리를 날리고 저 가게도 날린다.

또한 어순이 자유롭지 못하다.

7) 그는 이번 시험에 미역국을 먹었다.

8) *그는 미역국을 이번 시험에 먹었다.

관형화에 제약을 보인다.

9) *그 가게가 날린 파리

10) *그녀가 찐 보따리

분열문의 형성이 어렵다.

11) *그가 먹은 것은 미역국이다.

12) *그가 맞은 것은 벼락이다.

구성성분 중의 하나만이 질문의 초점이 될 수 없다.

13) 그가 무엇을 먹었니?

* 미역국을 먹었어.

두 요소 사이에 부사, 보조사 등 다른 요소의 삽입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인 쓰임만이 허용되고(참고 예14, 15, 16), 일반적인 구 결합 관계에서 보였던 자유로운 수식어의 삽입 등에서는 심한 제약을 보인다. 즉, 예 17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없다거나 예 18에서처럼 보조사의 삽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14) 이 번에도 미역국을 또 먹었어?

15) 물이 단단히 들었어.

16) 손이 어찌나 큰지 월급쟁이 월급

9) 예 1~13까지의 Test와 뒤에 첨부된 자료 I, II, III은 1994년 여름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실 연찬회에서 '관용표현 용언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현화, 이종희 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발표한 내용임을 밝혀 둔다.

으로는 감당을 못 하겠어.

17) *그는 미역국을 많이 먹는다.

18) *그는 미역국도 먹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속어의 일반적인 특성인 공고한 결합성에 위배되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속어는 입말에서 주로 쓰이면서 이렇듯 그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모미를 살리면서 다양한 꼴 변화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콩밥을 떠다/떡이다', '바람을 맞다/맞히다', '이를 같다/이가 갈리다'와 같이 사동·피동 변형꼴을 가지는 것들도 더러 있고,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단어나 조사를 교체하여 표현의 모미를 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명함을 내밀다'라는 속어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할 때는 '그 돈 조금 가지고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라든지 '그래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 등 이의 부정꼴이나 의문꼴 등 맥락에 맞게 적절한 꼴 변형을 하면서 사용되고 있다¹⁰⁾.

다음으로 이들의 형태상의 특징으로서 관용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이들이 주로 입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구 결합에 쓰이는 조사의 사용이 매우 수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속어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관용표현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예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비행기를 날리다'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사용할 때는 '를'을 거의 말하지 않으므로 '비행기 날리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사용하여 '비행기(를) 날리다'처럼 이의 수의성을 표시하기로 한다.

2. 유형

수많은 관용구 가운데 어떤 것을 속어로 구별해 내는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적으로 구 결합의 쓰임이 일반적으로도 쓰이는 표현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래에 든 예들처럼 일반적인 구 결합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아가 그 의

10) 이에 대하여는 홍재성(1992a)의 '속어동사 구문의 어휘·통사적 속성'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미의 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에는 구 결합을 이루는 성분상의 관찰상, '주어+술어' 구조를 보이는 것과 '목적어+술어'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이) 붓다
물(이) 들다.
바다(이) 들어나다
손(이) 크다
이(가) 갈리다

꼬리(를) 잡다
눈(을) 뜨다
두 손(을) 들다
등(을) 돌리다
명함(을) 내밀다
못(을) 박다
미역국(을) 먹다/미역국(을) 먹이다
바가지(를) 쓰다
바람(을) 맞다/바람(을) 맞히다
벼락(을) 맞다
보따리(를) 싸다
비행기(를) 태우다
손(을) 대다
손(을) 잡다
옷(을) 벗다
이(를) 갈다
입(을) 맞추다
입(을) 열다
지도(를) 그리다
콩밥(을) 먹다/콩밥(을) 먹이다
파리(를) 날리다
피(를) 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관용어로 다루어지곤 했던 '산통을 깨다', '시치미를 떼다', '변죽을 울리다', '교편을 잡다' 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들이 통사적인 고찰에서는 '산통(소경이 점 칠 때 쓰는 산가지를 넣는 조그마한 통)이나 '시치미'(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주소를 적어 매의 끈지 속에 매어 둔 네모 난 뿔) 등이 자유로이 쓰였던 단어이고, 그들의 결합인 '시치미를 떼다'나 '산통을 깨다'가 일반적인 구 결합이었을 수 있으나, 공시대에서는 이러한 구 결합에 쓰인 이 단어를 위에 기술된 바의 독자적인 의미로 인식하면서 사용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동음이의적인 쓰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속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들은 구 결합 구조에서 갖는 의미로서의 앞 명사의 쓰임이 그 때뿐이므로, 이들의 뒤에 오는 통사적 환경이 제약된 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단 '통사적 연어'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처리한다.

2.3. 의미적 연어

2.3.1. 정의 및 특성

의미적 연어란 예를 들어 '뒤가 끌리다'의 뜻은 이 단어들의 뜻 그대로 '뒤가 끌린다'는 뜻이 아니라 '땀땀하지 못하고 마음이 썩기다'라는 뜻으로서, 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그 의미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을 일컫는다.

그리하여 이들의 특성은 속어와 달리 이러한 결합 구조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낱말의 대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속이 타고 애가 타든지, 속이 타고 속이 상하고 속을 끓이고 속을 떠보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낱말의 대치가 속어에 비해 자유롭게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속어가 원래 자구적인 쓰임이 있어 그의 통어적 결합이 자유로운 데 반해 이들은 통어적인 구 결합의 의미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궁둥이가 실제로 무거울 수도 없으며, 속이 탈 수도 없고, 입이 무거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어느 쪽이든 전의된 의미로 쓰여야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한다.

그리하여 '속어'가 '동음 이의'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의미적 연어'는 이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각각에서 전의되어 쓰이어 '다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속어와 달리 이들에 있어서는 개별 단어에 대한 이해가 관용적 단어 결합으로 쓰이는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의미적 연어도 이 구조로 단일한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속어에서 보였던 통사적 특징을 속어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인다. 예를 들어 '입에 붙다'는 '1가 2가 입에 붙다' 구조로서 1에는 '누구'가 오고 2에는 '무엇'이 온다는 격률 구조를 가진다는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에서 보였던 속어의 통사적 제약 특성을 이들도 보이는데 속

어에 비해 그리 심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의미적 연어인 경우에는 '서다'와 관련한 관용구들을 중심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뒤에 첨부된 자료 I 과 II를 참고하라.

2.3.2. 유형

의미적 연어를 이루는 주 원인은 이러한 관용구를 이루는 어휘들의 전의에 기초하므로 전의되는 어휘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앞의 단어가 뜻이 바뀌어 이루게 되는 '뒤가 꼴리다'와 같은 것이 있고, 둘째로 '애가 서다'에서처럼 뒤의 단어가 전의되어 쓰이는 구들이 있으며, 셋째로 '입이 무겁다'에서처럼 앞·뒤 단어 모두가 전의되어 쓰이는 것들이 있다¹¹⁾.

이들에 대한 사전적 처리는 다의 관계에 있는 각각의 단어 용법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 표제어 [속]과 [뒤]의 경우에 이러한 의미적 연어를 보이는 관용구에 다음과 같이 많은 예가 있어 이들을 모두 사전에서 부표제어의 자격으로 보여 주게 되면 사전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의 바른 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속]

속(을) 굶이다/며보다/씩이다/쓰다/주다/차리다/태우다/터놓다

속(이) 달다/뒤집히다/떨리다/보이다/상하다/시원하다/씩다/없다/오르다/타다/트이다/풀리다

[뒤]

뒤(가) 구리다/꼴리다/달다/뒤가 무겁다/밟히다/저리다/깡기다

뒤(를) 노리다/두다/묻다/받치다/밟다/사리다/싸주다/재다/캐다/파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의미적 연어로 분류되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1) 정지도 1990: 44쪽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용구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달라서 그 분류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어 참고로 하였다.

한결같이 일상적인 의미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다.

겁(을) (집어)먹다
공둥이가 무겁다
기(가) 차다/막히다
나이(를) 먹다
늑(을) 먹다
눈에 들다/익다/눈(을) 붙이다
더위(를) 먹다/타다
말이 딱히다
살로 가다
손(을) 타다
입에 불다
철(이) 들다
코가 높다

이처럼 지극히 기본적인 순 우리 말 어휘들, 다시 말해서 주로 사람의 몸의 부분이나 사람과 관계 깊은 분야에 있는 낱말들이 이러한 구 결합을 많이 이루거나, 동사도 '먹다'나 '서다', '타다'와 같은 기본 동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구조를 보이는 쓰임이 많다.

그런데 의미적 연어에서 이를 이루는 구의 단어들의 쓰임에서 어느 단어의 다의성이라는 연관된 의미를 찾는 작업을 놓고, 이들의 기술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의미 항목 내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의미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표제어의 의미 기술이 끝난 후에 맨 아래에서 따로 기술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뒤에 첨부한 자료 III '서다'의 경우를 참고하라.) 기존 사전에서의 처리는 일괄적으로 관용구는 그 표제어의 기술이 끝난 후에 부표제어로 한 칸 들여 써서 표시하고 있다.

2.4. 통사적 연어

관용적인 어절의 결합이 통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들을 일컬어 '통사적 연어'라 한다. 이에는 우선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 관계에 있는 말들이 있는데 이는 다시 이들의 본질적인 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필연성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는 용언이 그 앞에 오는 주어나 목적어를 제약하는 경우가 있고, '물구나무를 서다'와 같이 앞에 쓰인 명사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제약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부사어가 뒤에 오는 서술어를 제약하는 유형도 있다. 다음으로 주로

양태 부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통사적 공기 관계(cooccurrence relation)에 있는 말들이 있다.

2.4.1. 용언으로 인한 선택 제약

동사의 의미 자질상 그 성분으로서 특정한 명사만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어절의 관계에 있는 구를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동사나 형용사가 그와 결합하는 명사항으로서 단지 하나나 둘의 최소의 낱말발을 형성하는 쓰임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에는 예를 들어 '닫다' (close)라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이나 눈, 귀를 '닫는다'고 말할 때에 '입을 다물다', '눈을 감다', '귀를 막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고, 목적어로서 동족목적어만을 요구하는 '춤을 추다' 류의 타동사나 '잠을 자다'와 같이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어를 요구하는 것들도 이에 속한다. 또한 '설을 쇠다'와 같이 목적어로서 일정한 명사류로 한정하여서만 쓰이는 관용성을 보이는 것 등 용언으로 인한 선택 제약 현상을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를 특정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해당 어휘 항목에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보면서, 연속된 어구의 쓰임이 통사적인 이유로 인하여 야기되었다는 의미에서 '통사적 언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열다'와 관련하여 '병을 따다', '눈을 뜨다'가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체내에 생긴 분비물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내 보내는' 동작을 나타 내는 것에 '침을 뱉다', '코를 풀다', '똥을 누다', '소변을 보다', '방귀를 뀌다' 등이 있다. 또한 '입다'와 관련하여 그 부위에 따라 특정한 동사만을 요구하는데 '모자를 쓰다', '시계를 차다', '반지를 끼다', '양말을 신다', '목걸이/귀걸이를 하다', '우산을 쓰다/받치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한 영어의 'play'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동사들이 쓰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 또한 기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웃을 놀다', '바둑/장기를 두다', '바이올린을 켜다', '피아노를 치다', '화투를 치다' 등이 있다.

목적어로서 동족목적어만을 요구하는 타동사에는 '춤을 추다', '꿈을 꾸다', '빨래를 빨

다', '짐을 지다' 외에 십여 개가 넘고, 자동사이면서 이러한 것에 '잠을 자다', '걸음을 걷다' '웃음을 웃다' 등 수십 개가 있다. 이처럼 목적어의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주어에 제약을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오줌/똥이 마렵다', '개가 짖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2.4.2. 체언으로 인한 선택 제약

통사적 연어를 이루는 것에 위에서 살펴본 것과는 제약하는 주체의 방향이 다른 것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바로 '물구나무를 서다'나 '거드름을 피우다'와 같은 것들로서 앞에 쓰인 명사가 뒤에 오는 용언을 제약하는 경우이다¹²⁾. 이들 명사군은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명사들의 특징의 하나는 이들이 대부분 순우리말로써 주로 입말에서 사용되어 표현의 맛이 살아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음운론적으로도 일련의 특징이 발견되는데 된소리나 센소리가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유형에도 용언을 선택 제약하는 명사가 자립적으로 쓰이는지 자립적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로 '물구나무를 서다' 유형이 있는데 이들 명사군은 특정한 동사와의 결합을 제한하고, 이러한 단어결합을 이루는 요소들이 오늘날에는 독자적인 뜻도 없고, 따라서 자립적인 어휘적 단위로 설정하기조차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다. 즉, '물구나무를 서다'에서 '서다'는 그 결합의 쓰임이 자유로운데 반해 '물구나무'는 독자적인 뜻도 없고 다른 단어와의 관련성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서다'와만 결합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고, 일단

12) W.Porzig는 독일어의 의미발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쪽을 일괄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다. 그 이유로는 이들 두 개의 품사에 속하는 낱말은 어떤 대상(명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을 서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고: 허발 1981:70f.)

‘물구나무’라는 명사가 선택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통사적 환경이 관용구로 쓰이는 용법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쓰임에 있는 명사들을 한 유형으로 묶어 ‘비자립적 명사’라고 하겠다. 비자립적 명사와 함께 쓰인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위(에) 놀리다
 간담(이) 서늘하다
 갈피(를) 못 잡다
 골병(이) 들다
 골탕(을) 먹다/먹이다
 나발(을) 붙다
 넌더리(가) 나다
 눈독(을) 들이다/(이) 오르다
 땀전(을) 피우다/부리다
 들통(이) 나다
 망신살(이) 뻗치다
 발버둥(을) 치다
 뺨(이) 없다/뒤틀리다
 본때(를) 보이다/(가) 있다
 뿔(이) 빠지다
 부아(가) 나다/치밀다/터지다
 한눈(을) 팔다

속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산통을 깨다’, ‘시치미를 떼다’, ‘번죽을 울리다’, ‘교편을 잡다’, ‘경을 치다’ 류도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이 유형을 이루는 것에 위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립적으로도 쓰이고 또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명사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관용구로 쓰인 예를 먼저 보이고 칸을 들여 써서 그 단어의 일반적인 결합의 쓰임을 보인다.

거드름을 부리다/피우다
 #거드름이 찰찰 넘친다.
 난장판을 치다
 난장판을 이루었다.
 녀살이 좋다/을 피우다/부리다
 #녀살이 늘었다.
 농청을 떨다/부리다
 #그의 농청을 안다.
 달음박질을 치다

#달음박질로 도망갔다.
 배짱이 두둑하다/을 부리다/튀기다
 #그 거물급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배짱과 능력에 감탄했다.
 법석을 떨다/피우다
 #단칸방에 살아도 모두들 유치원에 보내느라 아침마다 법석이다

제시된 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명사군들을 손쉽게 이 범위에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쓰임이 자립적인지 비자립적인지를 말뭉치에 근거하여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한 바른 기술을 해야 한다고 본다¹³⁾.

골탕(을) 먹다/먹이다
 급살(을) 맞다/(이) 나다
 까탈(을) 부리다
 내동댕이(를) 치다
 눈총(을) 맞다/주다
 덜미(를) 잡히다
 된서리(가) 내리다/(를) 맞다
 뒤통무니(를) 빼다/치다
 등골(을) 빨아먹다/뺨먹다/뺨다
 등골(이) 빠지다/서늘하다/오싹하다
 /튀다
 말발(이) 세다
 말뺨(을) 부리다/피우다
 먹살(을) 잡다
 무등(을) 타다
 뺨소니(를) 치다
 뺨(이) 세다
 뺨(이) 빠지다
 쌍심지(를) 켜다
 소름(이) 끼키다/돋다
 안간힘(을) 쓰다
 애간장(이) 타다/(을) 태우다
 일침(을) 놓다
 입심(이) 좋다/세다/대단하다
 작살(이) 나다/(을) 내다
 조바심(을) 치다

13) 위에서 든 예들은 말뭉치를 토대로 하여 검토가 끝난 것들이고 아래에 든 예를 비롯하여 수백 개에 이르는 이 종류의 것들도 세심한 검토를 한 후에 자립적인지 비자립적인지 따라 바르게 기술되어야 하겠다.

주눅(이) 들다
 줄행랑(을) 치다/놓다
 줄행랑(을) 치다/놓다
 진(을) 빼다/(이) 빠지다
 짜증(이) 나다/심하다/(을) 내다/부리다
 콧대(가) 세다/높다/(를) 꺾다/세우다
 툽(을) 주다
 퇴짜(를) 맞다/놓다
 풀(이) 죽다
 허풍(을) 떨다/치다/(이) 지나치다
 헛말(을) 켜다
 호통(을) 치다

왜냐하면 ~ -기 때문이다
 차마~ -리 수 없다
 하마터면~ -리 뻔하다

2.5. 형태적 연어

2.5.1. 정의

통사나 의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고정된 어휘꼴이나 혹은 극히 제한된 활용꼴로 나타나는 어휘론적인 현상으로서 설명되는 어절들의 관계로서, '-ㄴ 가 보다', '-려나 보다'처럼 이제는 거의 하나의 어미처럼 기능하는 것들이나 '~에 대한', '~에 따라서', '~로 인하여'처럼 특정 조사와 늘 붙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말한다¹⁴⁾.

2.5.2. 유형

이들에 대한 자료는 “‘에’와 ‘로’를 중심으로 한 국어 조사의 용법”(남기심: 1993)에 총망라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쓰임을 보이는 것들을 ‘익은말’ ‘불은말’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상의 견해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단지 ‘형태적 연어’로 분류하는 데 의의가 있고 이들의 사전적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하에 이 책에서 여타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로 한다.

첫째로, 특정 명사와 조사가 늘 붙어서 사용되는 어절의 쓰임이 있는데, 이에 [~ NP 에] 붙은 것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것들에 [~ 바람에], [~ 탓에], [-ㄴ 통에], [~ 김에], [~ 등쌀에], [~ 때문에] 등이 있다.

둘째로, 활용꼴이 매우 제한적인 일련의 용언들이 (대부분 평서형으로 안 쓰임) 조사 [에]나 [로] 등으로 표현되는 부사어와 늘 붙어서만 쓰이는데 이 때 이들의 관계를 일컫는다. 이에 [~에+용언] 붙은 구성을 보이는

2.4.3. 부사어로 인한 선택 제약

다음과 같은 예들은 앞에 오는 부사어가 다음에 오는 특정한 용언을 제약하는 것들이다. 즉, ‘가랑이가 찢어지게’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나하다’만이 올 수 있고, ‘코가 삐뚤어지게’라고 해도 ‘마시다’밖에 쓰이지 못하므로 부사어가 이러한 구 결합을 야기하므로 부사어로 인한 통사적 연어로 분류한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불티 나게 팔리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

2.4.4. 통사적 공기 관계에 있는 말들

주로 양태부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이들 부사는 문장속에서 다른 단어나 표현과 조응하여 쓰이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므로 양태부사를 기술하는 곳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 주어야 한다. 통사적 공기 현상의 관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

결코 ~ -리 수 없다
 단지~ -리 뿐이다
 만약/만일/가령~ -면
 모름지기 ~ -리 것이다.
 반드시 ~ -야 한다.
 비록~ -리 지라도(/-ㄴ 다 해도)
 설령/설사~ -한다 해도
 설마~ -리까
 아무리~ -아도

14) 이러한 형태적 연어는 다음과 같은 H. E. Palmer의 용어 collocation과 비교할 만하다. “둘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낱말의 단어로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된 단위로 파악해야 할 어군(word group)을 말한다.” (영어학 사전 1990: 217쪽)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에 따라(서)/따르(기)/따르면(따른다면)/따르지/따른(따르는)], [~에 비하여(비해/비해서)/비하면], [~에 관한/관하여], [~에 대한/대하여(대해/대해서)], [~에 의한/의하면(의한다면)/의하여(의해/의해서)], [~에 그치는(그친/그칠/그치지)], [~에 반해], [~에 있어서], [~에 지나지 않다], [~에 불과하다/불과하지만/불과하므로/불과한(불과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에도+용언] 붙은 구성으로 [~에도 불구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고, [~로+용언] 붙은 구성에 [~로 인하여(/인해/인해서)], [~로 미루어], [~로 말미암아] 등이 있고, [~와+용언] 붙은 구성에 [~와 같이/같은], [~와 더불어], [~와 달리/다르게]가 있다. [NP~와+NP로] 붙은 구성에는 [~와 마찬가지로], [~와 반대로], [~와 별도로] 등이 있다.

셋째로, 그 자체로서 한 단위로 기능하면서 그 의미도 하나인 소위 ‘관형어미 수반 관용구 용언’이라고 칭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다. [-리 것이다], [-니 것이다], [-리 것 같다], [-니 것 같다], [-리 수 있다] [-리 수 없다] [-리 수밖에 없다] [-리 리 없다] 등이 있다.

넷째로 하나의 어미처럼 기능하는 것들에 [-나 보다] [-니/는가 보다] [-리까 보다] [-려나 보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을 맞아] [~을 두고] [~을 보고] [~을 가지고] 등 그 꼴로 쓰이어 조사처럼 쓰이는 것들도 있다.

이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사전적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3장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었다.

3. 관용구의 사전적 처리의 문제점

3.1. 기존 사전의 처리 (현황표: 18쪽)

위에서의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사전에서의 처리와 비교하여 이들에 대한 기존의 처리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전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에서는 ‘관용구’에 대한 기존 사전의 처리 상황을 표로 보였는데, 여기서 이들 처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이 철저히 드러나

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논하면서 개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안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존 사전의 처리 현황표는 글의 편집상 이 글의 맨 뒤에 두었다(18쪽 참고).

3.2. 기존 사전의 처리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책 제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사전에서의 관용구 처리는 우선 그 경계를 긋는 데에서나 개별 표제어의 정보 기술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지만, 이의 사전적 처리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한 사전 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자 I로 묶인 것들, 즉, 속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비행기를 태우다’류의 사전적 표기를 놓고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처리 방법에 있어서 한글학회는 이들을 아예 하나의 표제어로 올려 한 단어로 보는 데 반해, 다른 사전에서는 이 결합 구조에서 대표되는 표제어를 세우고 이를 그의 부표제어의 자격으로 일정한 약물 기호 즉 ‘관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예인 ‘보따리를 싸다’도 이와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한글학회에서는 일관된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전에서처럼 부표제어 아래에서 처리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전의 처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한글학회 사전에서 이를 심지어 하나의 표제어로 잡았던 데에는 사실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곧 ‘비행기를 태우다’가 이 단위 전체로서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 ‘비행기’라는 부분 단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그렇게 한 것으로 미루어, 옳기로 말하자면 이를 한 단위로 올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글학회 처리에서의 문제점은 이를 한 단어로까지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는 엄연히 그 사이에 여러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결합 관계가 통어론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이대로의 자구적인 쓰임도 있는 가운데, 화용론적인 환경에 따라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구 결합으로 보아야 마땅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구 결합이 있으면 이를 일관되게 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의 처리 방식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결합을 보이는 구를 이의 자구적 쓰임과 동음이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표제어의 자격을 주어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사용자 편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첫 단어에서 그 구조를 보여 주고 다른 단어에서도 그 구조를 보여 주면서 설명은 중심 단어에서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쪽을 참고하라는 지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시된 방법이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이것과 의미적 연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통일시켜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양 쪽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예1: '비행기를 태우다'

처리1: '비행기'와 '태우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첫단어에서 여타의 설명을 하고 뒷단어에서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비행기] (뜻 풀이)
[비행기를 태우다] (뜻 풀이)

표제어 [태우다] (뜻 풀이)
[비행기를 태우다] (참고→ 비행기)

처리2: 이 관용구를 하나의 표제어로 올린다.

표제어 [비행기를 태우다] (뜻 풀이)
격틀: 1가 2를 비행기를 태우다 (1: 누구)

예2: '미역국을 먹다'

처리1: '미역국'과 '먹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이하 예1참고.

표제어 [미역국] (뜻 풀이)
[미역국을 먹다] (뜻 풀이)
표제어 [먹다] (뜻 풀이)
[미역국을 먹다] (참고→미역국)

처리2: 이 관용구를 하나의 표제어로 올린다.

표제어 [미역국을 먹다] (뜻 풀이)

격틀: 1가 2에서 미역국을 먹다
(1:누구, 2:시험 따위 명사)

관련어: 떨어지다

로마자 II에 있는 것들, 즉 의미적 연어를 살펴보자. 이 구조를 이루는 것들의 특성은 어느 한 단어나 혹은 양쪽 단어의 전의에 의해서 이러한 구가 형성된 것으로서 이의 다의적인 쓰임이므로 다의적으로 쓰인 단어 아래에서 이 결합을 보여 주면 된다고 본다. 기존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부표제어로 처리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지만, '뒤가 꼴리다'에서는 '뒤'가 전의되어 쓰였으므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데, '속이 타다'에서는 '타다'가 전의되어 나타난 구조이므로 '타다' 항목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모든 사전에서 동사에서 이러한 결합 구조에서 쓰이는 의미가 인정될 때에는 연어로 처리하지를 않고 의미 항목으로 처리하여 이의 연어적 쓰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쪽이 전의되어 쓰인 '입이 무겁다' 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에서는 그의 관용성이 인지되어 관요구로 처리되었으면서 '무겁다'에 가서는 모두 이 형용사의 의미 항목에 그러한 뜻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그리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관용성을 띤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구 결합인지를 모를 수가 있으므로 일단 명사항에서 관용성이 인정되었으면 용언 항목에서도 그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므로 관용 구조를 보이는 이러한 쓰임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양 쪽 단어에서 다 보여 주고, 전의되어 쓰인 쪽에서 설명을 하고 다른 쪽에는 그 쪽을 참고하라는 표시를 해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4: '뒤가 꼴리다'

처리: '뒤'와 '꼴리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전의된 쓰임을 보이는 앞 단어에서 여타의 설명을 하고 뒷단어에서는 앞 명사로 가 보라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뒤] (뜻 풀이)
[뒤가 꼴리다] (뜻 풀이)

표제어 [꼴리다] (뜻 풀이)
[뒤가 꼴리다] (참고→뒤)

예5: '속이 타다'
처리 : '속'과 '타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전의된 쓰임을 보이는 뒷단어에서 여타의 설명을 하고 앞단어에서는 뒤의 동사로 가 보라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속] (뜻 풀이)
[속이 타다] (참고→타다)
표제어 [타다] (뜻 풀이)
[속이 타다] (뜻 풀이)

예6: '입이 무겁다'
처리 : '입'과 '무겁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양쪽이 모두 전의된 쓰임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용 표현의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맞게 앞단어에서 여타의 설명을 하고 뒷단어에서는 앞으로 가 보라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입] (뜻 풀이)
[입이 무겁다] (뜻 풀이)
표제어 [무겁다] (뜻 풀이)
[입이 무겁다] (참고→입)

Ⅲ의 예 7과 8은 비자립적인 명사로 구성된 통사적 언어인데, 기존의 사전에서도 이의 특성이 어느 정도 인식되었기에 '물구나무-서다' 자체로서 하나의 단어로 처리되었고, 한편 '가위에 놀리다'는 금성판에서만 '가위-놀리다'로 앞에서 처리한 것과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이들이 바로 비자립적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위를 놀리다'라는 구조도 엄연히 쓰이고 있는 등 이들이 그대로 하나로 녹아 붙어 한 단어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각각을 구 결합으로 보고, 이러한 명사를 표제어로 올리되 독립된 명사로서의 의미를 기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결합구조를 바로 기술하여 그 합의 뜻을 기술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겠다. 북한 사전의 처리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예7: '물구나무를 서다'
처리 : '물구나무'에서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물구나무' 자체에 대한 뜻 설명이 없이 바로 이 구조를 보이고, 뒷단어에서

는 앞 단어로 가 보라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물구나무] [물구나무를 서다] (뜻 풀이)
표제어 [서다] (뜻 풀이)
[물구나무를 서다] (참고→물구나무)

다음으로 예 9와 10의 경우는 '물구나무를 서다'와는 그 유형이 다르다. 즉 이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쓰임이 관용 표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구 결합으로서의 쓰임이 있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독자적인 쓰임을 기술해 준 상태에서 관용구의 쓰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예9: '거드름을 피우다'
처리 : '거드름'과 '피우다'에서 각각 부표제어로 기술하되 앞단어에서 여타의 설명을 하고 뒷단어에서는 앞 단어로 가 보라는 참고 정보를 준다.

표제어 [거드름] (뜻 풀이)
[거드름을 피우다] (뜻 풀이)

표제어 [피우다] (뜻 풀이)
[거드름을 피우다] (참고→거드름)

다음으로 통사적인 언어를 보이는 IV의 경우에 기존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줌이 마렵다]의 경우 이들이 결합하여 자주 쓰인다고 하여, [오줌]이 지극히 자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오줌마렵다] 그 자체가 표제어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들은 단지 통사적인 지배를 하는 단어에서 의미 설명을 하는 난에서 그러한 통사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면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누다'를 처리하는 자리에서 그 목적어로 똥이나 오줌과만 함께 쓰이어 이리저리한 뜻을 나타낸다는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의 쓰임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설마'를 설명하는 곳에서도 이는 [-ㄹ까] 등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와 공기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이의 바른 용법을 기술해 주면 좋겠다.

예11: '똥을 누다'

처리 : 이러한 통사적인 구조를 야기한 동사인 '누다'에서 이러한 결합 정보를 기술한다.

표제어 [누다] (똥 풀이나 격를 정보에 목적이로서 똥이나 오줌이 온다는 정보를 포함 시켜 기술한다.)

표제어 [똥] (똥 풀이) [예문으로 처리]

예13: '설마 ~ -ㄹ까'

처리 : 이러한 통사적인 구조를 야기한 부사인 '설마'에서 이러한 결합 정보를 기술한다.

표제어 [설마] (똥 풀에서 '-ㄹ까' 등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한다는 정보를 포함시켜 기술한다.)

표제어 [-ㄹ까] (똥 풀이) [예문으로 처리]

V로 분류된 형태적 언어들은 그 꼴을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에 대한]의 경우 기존에서는 [대하다]에서 [대한] [대하여] 꼴로 쓰인다는 정보를 주는 데에 그쳤는데, 이는 사실상 항상 조사가 결합된 꼴인 [~에 대한/대하여] 꼴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이 꼴을 보여 주면서 그 의미를 기술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또한 조사 [에]항에서도 이 꼴을 보여 주면 관용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이러한 관용구 결합에 쓰이는 [에]의 용법을 [에]의 의미항목의 하나로 처리하여 그 곳에서 ' [에 대한]의 꼴로 쓰이어' 등으로 설명하거나, 둘째로 [에]항에서 여타의 관용구로 처리하는 기준에 맞추어 부표제어의 자격으로 이 꼴을 그대로 보여 준다.

예 16은 세 사전에서 보조 형용사 항목 내에서 처리되었는데 신기철 사전에서는 심지어 한 단어로 취급되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보조 형용사라는 근거가 미약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북한 사전에서처럼 타동사 [보다]의 의미항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보다]의 동음이의어 항목에서 [-ㄴ가 보다]의 꼴로 쓰인

다는 정보를 기술해 주면 좋겠다.

예 17 [-ㄴ/는/던 길에]는 이러한 형태적 결합 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주지 않고 있는데 [이다]와의 결합꼴을 제외하면 이 꼴로만 자주 쓰이므로 이 형태를 포함한 설명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15: '~에 대한'

처리 : '대하다'에서 이러한 결합 꼴을 보여 주면서 즉, '~에 대한/대하여' 꼴로 쓰이어...' 식으로 기술한다.

표제어 [대하다] (똥 풀이에서 '~에 대한/대하여' 꼴로 쓰이어' ...)

표제어 [에] (똥 풀이)

처리①: [에] '에 대한'의 꼴로 쓰이어... (똥 풀이) [예문으로 처리]

처리②: [에] (똥 풀이)

[에 대한]

예16: '-ㄴ/는가 보다'

처리1 : '보다'에서 이러한 결합 꼴을 보여 주면서 즉, '-ㄴ/는가 보다'의 꼴로 쓰이어...' 식으로 기술한다.

표제어 [보다] (똥 풀이에서 '-ㄴ/는가 보다'의 꼴로 쓰이어'...)

처리2 : '-ㄴ/는가 보다'의 꼴로 올린다.

표제어 [-ㄴ/는가 보다] (똥 풀이)

이상으로 우리는 위에서 관용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 맺는 말

이 글은 그 동안 '속어' 또는 '관용어'라는 이름 하에 별 다른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현대 국어 관용구를 그의 형태적·통사적·의미론적 결합 관계의 특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그들의 특성과 하위 분류 등을 밝혀 보았다.

즉, 관용구를 그 내적구조의 특성, 구성요소들 사이의 의미상의 관련성의 긴밀도, 어휘와의 정도에 따라, 어휘화된 정도가 가장 높고 긴밀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내적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을 '속어'라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언어'라 했다. '언어'가 생겨난 요인에 따라 '형태적 언어'와 '통사

적 언어', '의미적 언어'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국어 관용구의 특성을 밝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각 관용구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기술을 통해 국어의 특수한 어휘 결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들에 대한 기존의 사전적 처리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관성 있는 사전적 처리 방향에 대한 모색과 그에 따르는 남은 문제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글의 연구 대상으로 주로 용언구로 한정하였기에(형태적 언어는 제외) 다음과 같은 관용 표현을 이루는 언어단위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하지 못 했다.

'이걸 누구 코에 바르냐', '이게 웬 떡이냐'와 같은 관용문이나 '땅짚고 헤엄치기',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와 같은 속담들, '그림의 떡', '낙동강 오리알' 등의 NP+NP 유형, '먹여 살리다', '쥐고 흔들다'와 같은 V+V 구조를 이루는 것들, '덜어 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아니나 다를까' 등의 부사구로 이루어진 것들,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분류한 범주에 맞추어 검토해 볼 것을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김문창 1990a: “숙어 개념론,” 「기곡 강신항 교수 회갑기념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 김문창 1990b: “관용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김승호 1981: “관용어 연구 시론,” 「어문교육」 4, 한국어문교육학회.
- 남기심 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 심재기 1986: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 양태식 1984: 「국어구조의미론」 태화출판사.
- 영어학 사전 1990, 신아사.
- 이상억 1993: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희자, 강현화, 이종희 1993: “관용표현을 보이는 용언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사전편찬실 1993년 여름 연찬회.
- 정지도 1990: “현대조선말 성구에 대하여,” 「언어학 논문집」 8. 41-72 쪽.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 한정길 1986: “숙어표현에 대하여,” 「어학연구」 2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허발 1981: 「날말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홍재성 1992a: “한국어 관용표현 연구의 한 시각,” 국어학회 제19회 공동연구회 발제지.
- 홍재성 1993: “먹다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3.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 황희영 1978: “국어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성곡학술문화재단.

<사전>

- [국어 대사전] 1989. 이희승 편. 민중서림.
- [국어 대사전] 1991.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금성 출판사.
- [새 우리말 큰사전]. 1989. 신기철/신기용 편. 삼성출판사.
-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편.

[조선말 대사전] 1992. 사회과학 출판사.

- Firth, J. R. 1951: “Modes of Meaning,” 「Essays and Studies」 (The English Association), 118-149.
- Fleischer, W. 1982: 「Phrase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Leipzig.
- Halliday, M.A.K. 1968: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In: 「Word」 17. 241-292.
- Lyons, J. (ed.) 1970: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 Palmer, F. R. 1981: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 Porzig, W. 1934: “Wesenhafte Bedeutungsbeziehungen,” I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58, 70-97.
- Welte, W. 1974: 「Moderne Linguistik」, Max Hueber Verlag: München.

<관용구에 대한 기존 사전의 처리 현황표>: (3.1장)

관용구	사전	금성판	한글학회	신기철	조선말대사전
I 속어					
1. 비행기를 태우다		부표 비행기	표제 비행기-태우다	부표 비행	부표 비행기
2. 미역국을 먹다		부표 미역국	표제 미역국-먹다	부표 미역	부표 미역국
3. 보따리를 싸다		부표, 보따리	부표, 보따리	부표, 보따리	부표, 보따리
II 의미적 연어					
4. 뒤가 풀리다		부표, 뒤	부표, 뒤	부표, 뒤	부표, 뒤
풀리다		×	×	×	항목 예문
5. 속이 타다		부표, 속	부표, 속	부표, 속	부표, 속
타다		×	항목→속이타다	항목 예문	×
6. 입이 무겁다		부표, 입	부표, 입	부표, 입	부표, 입
무겁다		×	항목 예문	항목 예문	항목 예문
III 뽕사적 연어					
7. 물구나무를 서다		표제, 물구나무-서다	표제 물구나무-서다	표제 물구나무-서다	부표, 물구나무
서다		×	×	×	×
8. 가위에 놀리다		표제, 가위-놀리다	부표, 가위3	부표, 가위	부표, 가위5
놀리다		예문	×	×	×
9. 거드름을 피우다		부표, 거드름	부표, 거드름	부표, 거드름	부표, 거드름
피우다		×	항목 예문	×	항목 예문
10. 난장판을 치다		×	부표, 난장판	부표, 난장	없음
치다		×	×	×	×
IV 뽕사적 연어					
11. 똥을 누다		부표, 똥	×	부표, 똥	×
누다		×	×	×	설명
12. 오줌이 마렵다		부표, 오줌	표제 [오줌-마렵다]	부표, 오줌 [오줌-마렵다]	×
마렵다		예문	예문	×	×
13. 설마~-ㄹ까 등의 추측 어미		설명	×	×	×
-ㄹ까 등		×	×	×	×
14. 절대로~아니다 등의 부정어		×	×	×	설명 '절대'에서
V 형태적 연어					
15. ~에 대한 /대하여		'대하다'에서 설명	'대하다'에서 설명	'대하다'에서 설명	'대하다'에서 설명
16. -ㄴ/는가 보다		표제	표제	표제 [-가-보다]	없음
보다		항목(형)	항목(형)	항목(형)	항목(등)
17. -ㄴ/는/던 김에		×	×	×	설명 '김'에서
18. -ㄹ 바에(야)		표제	→바6	표제	'바'에서 항목

<표의 약호 설명>

로마자자로 표시된 것은 상위 개념으로 그 유형을 묶은 것이고 아랍숫자는 예문을 나타낸다. 예 1에서 '표제'란 구 결합 꼴로 표제어로 올라 있음을 말하고, 예를 들어 '부표. 비행기'는 [비행기를 태우다]가 [비행기]라는 표제어 아래서 부표제어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x'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항목 예문'은 이 결합 구조에서 보이는 의미를 항목 내에서 처리하여 예문으로 보여 주었음을 나타낸다. '예문'이란 의미 설명 없이 단지 예문 정도로 보여진 것을 말한다.

<별첨>

자료 I : 속어 TEST

속어 \ 기준	어순도치	삽입	관형화	관형형수식	대명사화	분열문	질문의 초점	격률
미역국을 먹다	x	x	x	x	x	x	x	x
꼬리를 잡다	x	x	x	x	x	x	x	x
바람을 맞다	x	x	x	x	x	x	x	x
입을 맞추다	x	x	x	x	x	x	x	x
손을 대다	x	x	x	x	x	x	x	x
뺨을 박다	x	x	x	x	x	x	x	x
피를 보다	x	x	x	x	x	x	x	x
비행기를태우다	x	x	x	x	x	x	x	x

자료 II: '서다'와 관련된 연어 TEST

	어순도치	삽입	관형화	관형형수식	대명사화	분열문	질문의 초점	격률
아이가 서다	x	x	x	x	x	x	x	x
무지개가 서다	x	x	x	o	x	x	x	o
핏발이 서다	x	?	x	o	x	x	x	o
주름이 서다	?	o	x	x	x	x	x	o
날이 서다	x	o	x	x	x	x	x	o
풀이 서다	x	o	x	x	x	x	x	o
장이 서다	o	o	?	o	?	o	o	o
죽대가 서다	x	?	x	?	x	x	x	x
말발이 서다	x	x	x	x	x	x	x	x
체면, 면목, 위신	x	x	x	x	x	x	x	x
조리, 논리	x	o	x	o	x	x	x	?
규율, 질서	x	o	x	o	x	x	?	o
규율을 세우다	x	o	o?	o	x	x	o	o
자신, 결심	x	o	x	o	x	x	o	o
결심을 세우다	x	o	o	o	x	x	o	o
확신, 각오, 세계관	x	o	x	o	x	x	x	x
전략, 대책, 계획	x	o	x	o	x	x	x?	o
(일반적 쓰임) 빌딩이 서다	o	o	o	o	o	o	o	o
(일반적 쓰임) 나라가 서다	o	o	o	o	o	o	o	o

④ 자료 III: 속어, 언어의 사전적 처리.

- 1)시안 1: 단어의 의미항들을 나열하고, 맨뒤에서 모든 글은말들을 가나다 순으로 따로 보인다.
 장결: 글은말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찾아 보기가 쉽다.
 단결: 글은말들을 모두 뒤로 뽑아내면 의미항목에 기본 의미만 남게 된다. 그리고 기본 의미 항목과 관련된 글은말이 있을 경우, 그 연관성을 나타낼 수 없고 글은말들 사이의 의미상의 유사성(유연성)을 보여줄 수 없다.
- 2)시안 2: 단어의 의미항들을 나열하면서 각 항마다에서 그에 해당하는 글은말을 보인다. 의미의 관련성을 찾아낼 수 없는 글은말들도 하나의 의미항목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보여 준다.
 장결: 기본 의미와 글은말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고, 의미상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글은말들의 관계도 보여줄 수 있다.
 단결: 하나의 글은말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항목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단어의 의미항목 수가 불필요하게 길어진다. 따라서 단어의 기본 의미를 추출해내기 어렵다.
- 3)시안 3: 단어의 의미항들을 나열하면서 각 항마다 그에 해당하는 글은말을 보이되, 그 의미의 관련성을 찾아낼 수 없는 글은말은 (시안 2와 달리) 맨뒤에서 보여준다.
 장결: 의미상의 유사성을 보이는 글은말들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단결: 각 의미 항목 내에서 처리되는 글은말과 그렇지 않은, 즉 의미항목 외에서 처리해야 하는 글은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다>의 경우

-시안 1

1. ① 몸을 위로 곧게 펴다
- ② 자리를 차지하다
- ③ 지위나 입장에 놓이다
- ④ 생기거나 만들어지다
- ⑤ 움직임을 멈추다
2. 구실을 맡아서 하다

날이 서다
 들러리들 서다
 말밭이 서다
 무지개가 서다
 물구나무들 서다
 보증을 서다
 아이가 서다
 앞장을 서다
 장이 서다
 주름이 서다
 줄을 서다
 풀이 서다
 찻밭이 서다

-시안 2

1. ① 몸을 위로 곧게 펴다
- ② 자리를 차지하다
- ③ 지위나 입장에 놓이다
- ④ 생기거나 만들어지다
- 날이 서다
- 무지개가 서다
- 아이가 서다
- 장이 서다
- 주름이 서다
- 풀이 서다
- 찻밭이 서다
- ⑤ 움직임을 멈추다
2. ①구실을 맡아서 하다
- 들러리들 서다
- 보증을 서다
- 앞장을 서다
- ② 줄을 만들다
- 줄을 서다
- ③ 몸을 거꾸로 하다
- 물구나무들 서다

-시안 3

1. ① 몸을 위로 곧게 펴다
 - ② 자리를 차지하다
 - ③ 지위나 입장에 놓이다
 - ④ 생기거나 만들어지다
 - 날이 서다
 - 무지개가 서다
 - 아이가 서다
 - 장이 서다
 - 주름이 서다
 - 풀이 서다
 - 찻밭이 서다
 - ⑤ 움직임을 멈추다
 2. 구실을 맡아서 하다
 - 들러리들 서다
 - 보증을 서다
 - 앞장을 서다
-
- 물구나무들 서다
 줄을 서다

(참고: '글은말'은 기존의 '관용어'를 뜻한다)